

원자력계가 21세기 과학 강국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길

김 우 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
2008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초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선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던져진 화두는 에너지이며,
원자력이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희망찬 무자(戊子)년 새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맞이한 2008년은 단순히 한 해가 바뀌는 신년(新年)이 아니라 참여 정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는 전환기적인 해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한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원자력계가 무엇을 해 왔으며, 또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1월3일에는 국제 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100달러를 돌파 했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배럴당 50달러를 돌파한 후 불과 3년여 만에 2배로 급등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유가와 더불어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가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발리 로드맵’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제 2013년부터는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가 온실 가스 감축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30여 년 동안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미국도 지난해부터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 인도, 러시아도 대규모 원전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핀란드를 포함한 유럽 국가도 잇따라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자력이 온실 가스 규제와 고유가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수입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인 우리나라로서는 또 다른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원자력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978년 고리 1호기가 최초로 가동된 이래 현재 20기의 원전을 통해 국내 전력의 40%를 공급하고 있어 원자력이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원자력계 가족여러분!

지난해 원자력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우리 원자력계가 추진해나갈 정책 목표와 과제를 제시한 바 있고, 산·학·연에서 훌륭한 R&D 성과도 많이 나와 원자력 수출도 2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 수출 : 2006년 2억8백만\$→2007년 4억4천만\$).

금년 초부터는 원자력 수출입 통제 업무가 온라인 서비스(NEPS)로 지원되어 원자력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기업이 원자력 업무를 종전보다 편하게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지난해에는 국내 원자력 CEO 모임인 원자력정책회의를 통해 원자력계의 주요 현안들을 함께 협의하고 미래 원자력을 향한 『종합 로드맵(시안)』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협력 분야에 있어서도 뜻 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IAEA와의 기술 협력 5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고, 제4세대원자로 국제포럼(GIF) 전체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되었으며, 핵연료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해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원자력 파트너십(GNEP)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는 지난해 신월성 1.2호기 건설을 허가하였고, 지난 12월에는 고리 1호기 계속운전이 승인되어 1월11일부터 100% 전(全) 출력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원자력의 첫 불을 밝힌 연구용 원자로 1호기를 보존키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미량의 핵물질이 분실되어 사회적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제 미량의 핵물질이라도 반입 단계에서부터 사용·저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핵물질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자력 가족여러분!

2008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초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선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던져진 화두는 에너지이며, 원자력이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보다 더 안전하고 경제적인 차세대 원자로와 핵확산성이 없는 Pyro 핵연료 등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해 원자력 연구 개발 재원을 확충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 원자력정책회의를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새로 등장한 GNEP 체제와 핵물질통합안전조치(IS) 체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원자력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협력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2014년 종료되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대비하여 지난해 국내 원자력계가 제시한 안을 토대로 금년부터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 올해는 신고리 3.4호기 건설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운영에 대한 안전 심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원자력 시설이 제대로 잘 운영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는 1월 23일에는 국제원자력안전학교가 원자력 안전기술원에 개원되어 국제 원자력 안전성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2008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원자력계가 새로운 21세기 과학 강국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 한분 한분 모두가 희망이 넘치고, 넉넉한 여유와 기쁨을 함께하는 복된 2008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